

## 광주 반도체특성화대학 유치...공동 특화단지 청신호

전남대·전북대 연합, 반도체특성화대학 공모 최종 선정  
 4년간 340억원 국비지원...420명 차세대 인재양성  
 광주·전남 상생1호 공동 특화단지 유치 기대감 고조

광주시와 전남대학교는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모사업에 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주관) 연합대학이 최종 선정돼 최대 340억 원의 국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차세대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사업 선정, 5월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 성과에 이은 쾌거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과 장치 구축, 기업 협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 5개교와 2~3개 대

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 3개 연합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대학교는 전북대학교와 연합으로 동반성장형(비수도권) 분야에 참여,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광융합·인공지능에 기반한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용 반도체 특성화 분야에 대해 4년간 총 42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선정은 호남권특화사업인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핵심인력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역인 북구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육성계획서를 지난 2월 말 산업부에 제출했다. 오는 7월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선정은 호남권특화사업인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핵심인력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시도민의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역인 북구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육성계획서를 지난 2월 말 산업부에 제출했다. 오는 7월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김도기 기자

## 서울~목포 2시간 '호남권 철도 교통 허브' 도약

철도공단, 호남권서 3개 철도건설 진행...1935억 투입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935억원을 투입해 호남권에서 3개의 고속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속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1523억원)이며 일반철도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354억원)과 전주-광양 전철화사업(58억원)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를 잇는 사업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올해만 15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 중 광주송정에서 고막원까지 25.9km는 기존 호남선을 고

속화(최고속도 230km/h)해 지난 2019년 6월 개통했고 현재 고막원에서 목포까지 44.6km 구간에 대한 고속철도 전용선로 신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오송에서 목포까지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운행이 가능해지고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해 수도권 이남 지역은 물론 영남과 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일반철도건설사업 중 보성-임성리 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고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기 위한 공사로 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를 단선으로 건설하게 된다.

개통은 2024년이 목표며 현재 공정률은 90.7%에 이른다. 노반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철화 개통을 위한 송전선과 전차선 분야 공정이 한창 진행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이동시간이 136분에서 64분으로 크게 단축되며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으로 영·호남 여객 및 물류 수송체계의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전주에서 광양까지 복선비전철로 운영 중인 55.1km 구간에 전기기관차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달 중 개통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전선 순천에서 밀양시(삼랑진)까지 158km 구간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완성돼 열차 고속운행과 선로용량 증대 등 교통편의 증대, 친환경 철도환경 구축 등이 기대된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호남권 철도망 확충과 전철화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는 물론 보편적 운송수단으로 철도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 의료기기 실증기반 사업 선정 2면
-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3면
- 기업부채비율 최고치 4면



포스코리튬솔루션 수산화리튬 공장 착공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는 13일 순천시 울촌1산단에서 포스코리튬솔루션의 수산화리튬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 日 오염수 방류에 불안 고조...마트 등 천일염 주문 폭주

日 방류 초읽기에 韓소비자 우려↑ "천일염 매출 14배 급증"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소비자들과 식품·외식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우리 해역에 도달하면 국산 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식품·외식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염수 방류 전에 수산물을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소금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신안군에서는 최근 천일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가격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신안군수협 직매장은 지난 8일부터 '신안천일염 2021년산 20kg' 가격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20%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신안군수협직매장은 수매 단가 및 인건비 상승을 가격 인상 이유로 들었지만, 소금 사재기 움직임도 소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커머스에서도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7일 동안 천일염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4배나 큰 폭으로 뛰었다. /뉴스1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끝판

#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다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프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